**[제목] 선구자(先驅者)의 딱 2가지 사명(막1:1~8)**
[일시] 2016년 5월 29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찬46장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찬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찬504장 주님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PW: 믿음, MIW: 외치는
T.S: 믿음이란 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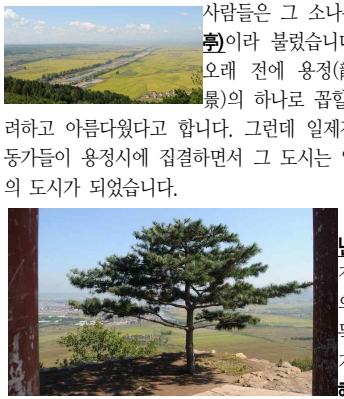
# 1. 서론

##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용정시에서 서쪽으로 약 3㎞를 이동해가면 **해란강** 옆에 **비암산(琵岩山)**이라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가보면 **정자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나무 모양이 정자처럼 생겼다하여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일송정(一松亭)**이라 불렀습니다. 그 일송정은 오래 전에 용정(龍井)시 팔경(八景)의 하나로 꼽힐만큼 자태고 수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용정시에 집결하면서 그 도시는 일약 독립운동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그 도시의 산 정상에 한 그루의 일송정이 우뚝 서 있는 것을 지켜본 어떤 **윤혜영**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것을 작곡가 **조두남**씨에게 주어 노래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바로 가곡《선구자》라는 노래입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흘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라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하지만 일본제국은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이 소나무를 가만 둘 수 없다 하여, 이 거대한 소나무에 해를 가하여 5년 뒤인 **1938년**, 결국 그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1991년** 3월 12일, 용정(룽징)시 정부는 한국 각계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소나무를 다시 심고, 정자를 신축하여 그해 9월에 저 모양의 정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용정(룽징)시 문물관리위원회에서 보호문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앞서서 말을 달리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구자라는 말에서 숭고함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목숨을 내건 용맹성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에 이어, **예수님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전선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눌까 합니다. 과연 선구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문제제기

##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요한이 선구자로서 선택을 받아, 먼저 가서 외침으로 메시야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맨 앞장 서게 되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세례요한은 선구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구자가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어서 선구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선구자로서 앞장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례요한은 선구자로서 살려고 했던 것일까요?

## 2)청중적 접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전파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선구자처럼 앞장 서서 일을 하라고 하면 과연 아멘 하면서 앞서서 행할 수 있을까요?

## 3)본문문제배경

세례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는 선구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선구자의 길을 갔던 것일까요? 그는 **원래 선구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 때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제사장지파였던 아론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정한 24반차 중에서 8번째 반차에 해당하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눅1:8). 그러므로 그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 그리고 **이어서 선구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11:9-10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뛰어난)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편안한 집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치른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밥이 아니었고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으며, 그는 구약의 엘리야처럼 **약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아야 했습니다(마3:4).

## 4)문제발생원인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눅3:2).

**"너는 이제 선구자로서 일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치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메시야가 오거든 그를 이스라엘사람들에게 나타내거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근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백성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들이 "또 미친 놈 하나 나왔네."하면서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강하게 담대히 외쳤는데, 아무도 그이 외침에 반응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하루 아침에 바보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돌팔매질을 해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5)문제 심리묘사

믿음이 있어도 **선구자로서 먼저 외친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앞장 서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있어도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 3. 문제해결

## 1)인간의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믿음으로 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세례요한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구자로서 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 가. 선구자란 어떤 자인가?

**'선구자(先驅者)'**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선구자란 **원래 말을 타고가는 긴 행렬에서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변화하여, 나중에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보냄을 받아 외쳤던 세례요한은 선지자를 뛰어넘어선 **'선구자'**라고 불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1:2-3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사실 **서른살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야로서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인 것을 당신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야가 탄생하기 각각 690년과 450년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메시야의 오실 길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B.C.690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사막 곧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야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B.C.450년경에는 말라기선지자를 통해, 메시야의 오실 준비하는 선구자가 있을 것임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4: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광야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선지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메시야를 드러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하1:7-8 (아하시야)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털옷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 나. 메시야의 선구자로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외쳐야 했는가? 딱 2가지다.

그러면 선구자로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외쳐야 했던 것일까요? 그가 외쳐야 했던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마3:1~2).**

마3:1-2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냐하면 메시야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빼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둘째, "바로 저 분이 메시야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요1:31).**

요1: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드러내려, 알게하려) 함이라** 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메시야이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붙들어야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다면, 선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딱 2가지다.**

선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사람이 외치지 못하는 마지막 관문은 담대함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도 담대함이었습니다.

수1:6,9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할 것은 주문했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후에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후에 무소부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선구자로서 복음전하러 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는 임마누엘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구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요일5:14~15).

요일5: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소개해 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선구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평행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막1:1, 요1:33~34).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1:33-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플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둘째, 그분은 세상죄를 없애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야(그리스도)'**이십니다.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셋째,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막1:3, 사40:3).

막1: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사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야로서 구약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된 그대로를 이루셨기에 그분이 메시야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이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세종대왕을 충녕군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헌세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종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최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부여된 칭호인 세종대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칭해지던 그 칭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 후 여드레가 지났을 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칭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20:27-28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 3)청중의 문제와 해결

**오늘날 우리도 왜 나가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왜 복음을 듣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첫째,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거짓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눅13:4-5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너희는) **회개하라**

**둘째,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님은 최초의 영적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야이며, 하나님 자신인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제는 우리가 선구자로서, 나가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 5. 복과 결단

### 1)복

### 가. 헌신자가 받는 복

세례요한이 강하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통회자복하고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 죄를 지고가는 메시야이신 것을 증거했더니, 많은 자들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세례요한은 전도의 축복을 받아,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니 무조건 진격해 들어가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의 문구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면 세례요한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즉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나. 청중의 더 큰 복

우리도 가서 강하게 담대하게 회개할 것일 외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 우리도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 2)결단

###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오늘날 **우리도 선구자로서 살아가려면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담대히 외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회개할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나. 결단의 축복

그러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침을 들었던 자들도 회개하여 천국에 침노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도 않고 넋놓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나 알거나 영적인 피조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여호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8: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고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감사와 회개**

주여, 선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선구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선구자로서 강하고 담대히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선구자로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선구자란 예수님이 누군지를 외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외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회개를 외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강하게 담대히 외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외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까지 외치겠나이다.

**3)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우리가 선구자로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와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담대히 외칠지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외칠지어다.

**4)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선구자란 먼저 가서 오실 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구나.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 백 년 전에, 메시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까지 말씀하셨구나.
3. 선구자는 회개하라고, 강하고 담대히 외치는 자로구나.
4. 선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자로구나.
5.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회개로구나.
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로구나.